

# 오늘도 우리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킨다

## 국방광장

김용범 중령  
공군수사단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셨고, 이름 없는 영웅들이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영웅의 탄생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압도적인 힘으로 전쟁을 예방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는 것.”

그 힘은 첨단 무기체계 도입, 체계적인 전술 개발, 인재 양성 등과 함께 국가·국민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군의 의지와 우리 군을 믿어주는 국민의 마음에서 기인한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한 조직이다. 장병들은 국방의 의무 아래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다.

의무복무를 하는 장병들은 한창 캠퍼스의 낭만을 누릴 나이에 입대한다. 복무 중 겪는 신체적 피로, 제한된 자유는 ‘희생과 헌신’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군인의 삶도 쉽지 않다. 잦은 이동,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생활, 일과 후에도 이어지는 비상대기와 각종 교육·훈련 등으로 일상의 리듬은 끊임없이 흔들린다. 군이라는 조직 특성상 수직적인 문화와 막중한 책임, 예상치 못한 임무 투입 등으로 끊임없는 긴장도 요구된다. 연차가 쌓일수록 진급과 보직에 대한 압박은 커지고, 전역 후 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삶이 보장된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

힘이 빠질 때도 있다. 언론에 일부의 잘못이나 특수한 사건이 군 조직 전체의 민낯인 양 과장돼 비난이 쏟아질 때 마음이 무너진다. 잘못된 점을 고치라는 목소리라면 당연히 경청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입힌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담담히 다시 선다.

“人不知而不慍(인부지이불온) 不亦君子乎(불역군자호).” 『논어』 학이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이다. 남이 몰라줘도 성내지 않는 사람, 그것이 군자라는 의미다. 우리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각자 맡은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다. 우리의 임무는 거창하지 않다. 가족, 이웃이 일상을 담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전망 좋은 카페에서 커피 한잔을 마실 수 있는 평범한 하루를 지켜주는 것. 우리는 그들의 평온함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또 버티는 것이다.

이들의 하루가 평범하게 지나가기 위해선 누군가 비범한 하루를 살아야 한다. 어제 우리가 지켜낸 평화 덕분에 오늘 우리 모두의 평범한 일상이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매일 군복을 입어야 한다. 그것이 군인의 길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킨다.

※ 본 지면에 게재된 글들은 본지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국방일보

발행인 채일 편집인 기국간

1964년 11월 16일 창간(일간) | 2010년 7월 1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337 | 인쇄인 장대환

독자관리 발송문의(구독신청 주소변경) 02-2079-3851~2 | 팩스 02-757-9309  
인터넷 kookbang.dema.mil.kr | 04353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편집팀	편집 02-2079-3770-85 교열 02-2079-3791-4	군947-3770-85 군947-3791-4
취재팀	취재 02-2079-3730-42 사진 02-2079-3760-3	군947-3730-42 군947-3760-3
디지털콘텐츠팀	02-2079-3710-4	군947-3710-4
광고문의	02-2079-3124	군947-312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AI 문명시대, 가장 중요해진 AI 국방

## 조명탄

최재봉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



처음으로 국방일보의 칼럼을 맡았다. 글을 쓰려는데 태극기가 떠오르고 애 국가가 깃가에 맴돌고 뭔가 신성한 일을 하는 느낌이 온다. 그 신성한 마음으로 평생을 다하는 분들이 우리 국군 일 것이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칼럼을 시작한다.

요즘 내 별명은 ‘인공지능(AI) 전도사’다. 말 그대로 AI가 얼마나 큰 문명적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산업에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열심히 전파하고 계몽하는 일에 밤낮없이 매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AI와 국방은 어떤 관계이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최근 지구 곳곳에서 전쟁의 포성이 번지고 있다. 2년이 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날 줄을 모르고 세계의 화약고 중동지역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란과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인도·파키스탄 간 대규모 공중전까지 일어나면서 전 지구적인 전쟁 공포가 확대 중이다. 이 정도라면 중국과 대만의 전쟁, 북한의 남침도 충분히 가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를 막아낼 충분한 전쟁역지력 확보가 절실한데 그 중심에 AI가 있다.

러·우 전쟁은 강대국 러시아가 금방 끝날 줄 알았지만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만만치 않다. 그 이면에는 미국의

AI 기술 지원이 있다. 미 국방 분야 AI를 선도하는 대표기업이 바로 팔란티어다. 빅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이 기업은 미 정보부 요청을 받아 데이터분석을 통해 빈 라덴 위치를 정확히 찾아낸 기업으로 유명하다.

이후 미 국방부와 정보부의 안보 관련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수주했고, 이를 바탕으로 ‘고담’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AI 기반의 전략 전술을 제공하는 세계 최고의 AI 국방 플랫폼으로 완성했다. 특히 러·우 전쟁 초반 50%의 작전 성공률에 불과했던 우크라이나의 드론 운용 책임을 맡아 AI를 적극 활용하면서 성공률을 80%까지 끌어올린 실적은 이미 유명하다. 이뿐만 아니라 위성사진 판독,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좌표 분석, 통신데이터 분석 등 거의 모든 데이터를 취합하고 AI를 적용해 적의 주요 기지와 시설물을 파악하고, 이를 무기체계와 연동해 실시간으로 파괴하는 역할은 독보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국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이토록 오래 버틸 수 있는 것도 AI의 강

력한 전투력 덕분이었다. 최근 중국은 캄보디아와의 합동훈련에 기관총을 부착한 로봇전투기를 투입해 수색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선보였는데 이미 많은 숫자의 AI로봇이 실전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러·우 전쟁에서도 드론에 이어 지상의 전투로봇이 AI를 탑재하고 임무수행하는 장면이 이미 많이 포착되고 있다.

AI를 전쟁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서명운동이 2021년 세계적으로 진행된 적이 있다. 세계적 석학과 기업인들이 그 취지에 동의한다며 대거 참여하기도 했다. 그래서 AI 기반의 무기 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 모든 합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없던 일이 돼버렸다.

전쟁의 역지력이 사라지면 인류는 전쟁을 일으키는 종족이다. 전쟁을 막는 건 생존의 문제다. 역사가 증명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은 그 역지력의 중심에 AI가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방에 AI 기술 도입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군 AI 인재를 양성하고 군 업무에 AI 사용을 확대하며 첨단 AI 기술을 적용해 무기체계를 혁신하는 일에 발 빠르게 투자해야 한다. 많은 노력과 자원이 투입되는 일이다. 그래도 국가의 생존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군의 AI 무장을 위한 종합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 레미제라블을 통해 되돌아보는 프랑스혁명

## 기고

정운 육군대령  
합동군사대학교



2012년 겨울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이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다. 우리나라에서도 600만 명 가까운 관객을 동원했다. 죄수들이 폭우 속에서 노를 저으며 외치는 절규, 도시 변두리의 음습함과 대중의 척박한 삶, 미리엘 주교의 인자한 미소와 회심한 장발장의 절기 넘치는 노래는 영화 초반부터 관객을 압도한다. 여기까지가 빅토르 위고의 원작 소설에서 ‘빵을 훔쳐 죄수가 된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를 만나 갱생한 이야기’다.

그러나 이 줄거리는 소설 초반 일부에 불과하다. 빅토르 위고는 장대한 이야기를 통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국가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진지한 시선으로 다룬다. 장발장의 삶이 인간의 ‘사랑과 용서’라는 가치를 상기시켰다면, 프랑스혁명이라는 시대적 배경은 우리를 또 다른 주제에 대한 사색으로 안내한다.

프랑스 시민들은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감옥을 점령하고 왕을 끌어냈다. ‘바스티유 데이’라고도 부르는 프랑스혁명 기념일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40여 년 후 왕정에 저항했던 청년들은 군대에 의해 처참히 짓밟힌다. ‘레미제라블’은 1832년 6월 일어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코제트의 연인

마리우스와 청년들이 쌓았던 바리케이드는 왕정 군대에 의해 힘없이 무너진다. ‘반동 시기’라고 불리는 역사적 퇴행의 결과였다.

프랑스 국민도 생각이 나뉘었다. 마리우스는 ‘공화파였던 아버지’를 증오한 ‘왕당파 할아버지’와 갈등을 겪는다. 소설 속 인물들의 대사가 갈등의 내용을 보여준다.

마리우스와 함께 바리케이드를 지켰던 앙졸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이 자유입니다. 모두 같이 권리를 누리는 것이 평등이며, 서로를 보호하고 하나 되는 것이 박애입니다”라며 자유·평등·박애의 이상을 설파한다. 이 가치는 오늘날 프랑스 국기에 삼색으로 선명히 새겨 있다.

한편 마리우스의 할아버지 질노르망은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믿었다. “군주 없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간단 말이나” “폭동을 혁명이라 부르지 마라”고 말하며, 공화정에 대한

격렬한 혐오를 표출한다. 그는 기존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왕정을 지지했다. 당시 프랑스 사회에 팽배했던 세대의 간극과 신념의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빅토르 위고가 소설을 집필할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설 『레미제라블』은 1851년 망명 이후 영국령 섬에 머물던 시기에 완성됐다. 공화적 이상을 담고 있는 세기적 저작은 1862년 프랑스와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출간과 함께 독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첨예한 논쟁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각계의 ‘질노르망’들이 ‘앙졸라’의 메시지를 불편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위고가 지금 시점에서 19세기 프랑스를 되돌아본다면 어떤 심정일까? 오늘날 프랑스혁명은 ‘근대 민주주의 토대를 마련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프랑스혁명 기념일 즈음해 영화 ‘레미제라블’이 선사하는 깊은 감성의 노래와 묵직한 메시지에 빠져 보는 건 어떨까 한다. 우리 국군이 지키는 민주주의가 프랑스혁명에서 태동한 근대 민주주의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긴 호흡으로 원작 소설에 도전해 볼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